

지역 상생형 일자리 본격 시동

전북도 - 군산시, 설명회 개최... 지역 실정에 맞는 상생협약안 마련·공론화 추진

전북도와 군산시가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3일 군산시청에서 군산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 투자계획 및 추진방향 설명회를 위한 '지역 상생형 일자리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군산시 주관으로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군산시장, 도 일자리정책관을 비롯한 군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노사민정실무협의회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군산의 미래 자동차산업 육성을 통한 상생형 일자리 창출을 격려했고, 군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으로 한국노총 군산시지부 고진권 의장과 민주노총 군산시지부 최재훈 지부장이 함께 참석해 지역의 고용위기를 극복하는데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또한, 군산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거

론되고 있는 MS 컨소시엄 대표기업인 (주)명신의 이태규 사장, 박호석 부사장, 새만금 스마트 모델의 대표기업인 에디슨 모터스와 대창모터스 대표가 참석해 각각의 모델에 대한 투자계획과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데 이어 노사상생형 일자리컨설팅단 군산대 김현철 교수가 컨설팅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주)명신 박호석 부사장은 총 2130억원을 투자해 2025년까지 9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면서, 7월 4일 등기이전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연구진 선발 및 시설을 보강해 2021년부터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MS 컨소시엄은 완성업체의 전기차를 주문자상표 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위탁생산에 수출할 계획으로 연간 5만대를 생산할 계획이며, 2025년부터는 자체 완성차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만금형 스마트 일자리 모델에 대해서는 그간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대

기업 중심의 불공정한 원·청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 간 수평적·수직적 상생협력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총 2884억원을 투자해 2024년까지 96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형 스마트 일자리 모델은 지난달 30일 (주)에디슨 모터스, (주)대창모터스, (주)코스텍, (주)엠페이스 4개 기업과 전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투자협약을 맺은 바 있다.

김미정 도 일자리정책관은 "정부가 상생형 일자리를 상반기 중 2~3곳을 추가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만큼, 군산지역에 우선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군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면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확산에는 공론화가 중요한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상생협약안 마련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새만금수변도시 조성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관련 정무부지사 브리핑
3일 전북도청 기자회견실에서 이원택 정무부지사가 새만금수변도시 조성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있다.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서거석 전 총장 초청 특강 '호응'

서거석 전 전북대학교총장이 지난 5월 30일 글로벌인재관에서 열린 공공인재학부 10주년 기념식에서 '성공적인 삶과 대학생활'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에는 공공인재학부(학부장 강문경) 신입생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서 전 총장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할 수 있다는 긍정의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성공적

인 삶의 조건으로 '건강과 시간관리, 시간관리 및 인간관계'를 제시했다. 또한 "공공인재학부 학생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구체적인 삶의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도전정신과 열정으로 실력을 배양하고 학생 모두 자신의 차별화된 가치를 형성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강에 참석한 최도영 학생은 "강연 내용을 꼼꼼히 과거의 나를 반성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꾸준한 자기 관리를 통한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이날 공공인재학부동문회(회장 김종명)는 서거석 전 총장의 학부 설립과 발전과정에서의 공헌에 감사하며 서 전 총장을 제1호 명예동문으로 추대했다.

서거석 전 총장은 전북대학교 제 15·16대 총장을 지냈으며, 제19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가천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장은성 기자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꾸준한 자기 관리를 통한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이날 공공인재학부동문회(회장 김종명)는 서거석 전 총장의 학부 설립과 발전과정에서의 공헌에 감사하며 서 전 총장을 제1호 명예동문으로 추대했다.

서거석 전 총장은 전북대학교 제 15·16대 총장을 지냈으며, 제19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가천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 중소·벤처기업에 국방산업 정보 공유한다

도-전주시-국방기술품질원, 전북국방벤처센터 공동 운영 협약 체결

전북도는 전주시, 국방기술품질원(이하 협약기관)과 함께 지난달 31일 '전북국방벤처센터(이하 센터) 공동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협약기관이 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전북지역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전북지역 국방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당초에는 전주시에 소재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국방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전북도의 참여로 13개 시·군으로 확장되어 더 많은 기업

들이 국방산업 진출 및 활성화가 될 전망이다.

또한, 센터 명칭도 '전주'에서 '전북'으로 변경하여 전북도 전 지역의 중소기업들에게 국방산업을 연계·육성하는데 협약기관이 함께 노력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 중소·벤처기업 발굴 ▲보유 기술조사 ▲국방산업화 지원 ▲국방 매출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며, 국방사업 진출을 위한 정보공유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더 내실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김진성 기자

2009년 개소 후 10년 간 운영된 센터는 전주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국방 진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해왔다. 최초 16개 협약기업으로 시작하여 현재 29개로 늘어났으며 2018년에는 이들 협약기업이 국방분야에 진출하여 48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특히, (주)바로텍시너지는 다수 국방 과제 참여를 통해 시뮬레이터 분야 전문기업으로 성장하여 최초 협약 시점 대비 국방분야 매출은 3배, 전체 매출은 8배 증가하는 발전을 이뤘다. 또 다른 협약기업인 비나텍(주)은 기존 보유하고 있던 '슈퍼 캐패시터' 기술을 기반으로 센터와 협력을 통해 '합포 70mm 구동용 슈퍼 캐패시터' 개발에 성공하여 국방분야에 진출하는 등 많은 중소벤처기업의 국방시장 개척에 기여했다.

/김진성 기자

태풍·폭우, 여름철 안전도 119가 지킨다!

도 소방본부, 풍수해 재난 대비 나서

전북소방본부가 올 여름철 풍수해 재난 대비·대응을 위해 나섰다.

또한 각 시·군 소방서 보유 무전망, 전화망 등 통신시스템을 점검하고 취약 지역 마을 이장, 지자체, 민간구조 단체 등 재난대응 네트워크 체계를 사전 정비(여름철 재난대책기간) 풍수해 피해 예방을 위한 4단계별(사전대비, 내습 전·중·후)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사전대비 단계에서는 침수이력 및 고립위험지역에 해당하는 침수예상지역 53개소와 사고위험예상지역 107개소 등 강·하천 주변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수중펌프 등 풍수해 대응장비 453대(소방서 보유 279, 권역별

집중배치 장비 174) 등 자원 100%가동을 위한 자원 점검에 나섰다.

또한 각 시·군 소방서 보유 무전망, 전화망 등 통신시스템을 점검하고 취약 지역 마을 이장, 지자체, 민간구조 단체 등 재난대응 네트워크 체계를 사전 정비하여 유사시 즉각 대응토록 했다.

내습 전 대응 상황으로는 피해 집중 예상지역을 사전 판단하여 양수기, 수중펌프 등 수방장비와 소방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며, 동시다발 출동체계를 구축하여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단계별 비상근무 보강으로 상황근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내습 중 대응 상황으로는 재난피해 범위와 규모를 고려하여 긴급구조통제단을 설치 운영하고 동시다발 상황에 유

효한 소방력 출동 배분과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위한 광역대응체제로 대응하게 된다. 또한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주민 대피조치와 출입 통제 등을 실시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내습 후에는 급·배수 지원, 위험 제거활동 등 재난 복구와 민생보호 활동에 기용 소방력을 최대 지원하여 피해 발생 기점에 대한 재빠른 복구조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마재운 소방본부장은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의 영향에 따른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소 기상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도민 스스로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요소에 대해 사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사람·동물·자연이 모두 건강한 One-Health 실현

전북 동물위생시험소, 환경부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조류인플루엔자 등 질병전파 매개체인 야생조류 감시 강화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3일 환경부가 선정하는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야생동물 질병진단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전담했지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등으로 인한 야생동물 질병감사 수요가 급증하고, 장거리 시료 송부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신속한 질병진단체계 구축 및 야생동물 질병발생 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 20곳을 야생동물 질병진

단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동물위생시험소 선정은 양축 농가에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는 AI 전파 매개체인 야생조류(철새 등)의 폐사체 검사 등 AI 감시 및 조사·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매년 가족질병 진단능력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정확한 질병진단을 위한 One-Health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야생조류 폐사체 질병 검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지역 환경청 또는 시·군 환경부서에 신고하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뒤,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병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조전기 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야생동물에서 유래된 바이러스가 변이되어 사람과 가축에 질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철새 등 야생동물을 감시하고 인수공통전염병 관리를 강화해 사람·동물·자연이 모두 건강한 One-Health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